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서〉

송(訟)

구사 九四) '상전(象傳)' '돌아와 명(命)에 나아가 변혁하고 편안하며 바르면'이라고 한 것은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復卽命, 渝, 安貞', 不失也].

'명(命)'이란 사람이 받은 바른 이치이다. 구사(九四)는 양으로 음의 자리에 거하고 건체(乾體)의 아랫자리에 있어 소송을 하는 상황에 처하여 이치를 어기고 망령되이 나아가 윗사람과 다투려고 하는 자이다. 그러나 유(柔)의 자리에 거하고 아랫자리에 있으니 어찌 강건하고 중정한 덕을 지니고 윗자리에 있는 이를 이길 수 있겠는가? 나는 굽고 저는 곧아 의리상 이미 이길 수가 없다. 만일 망령되이 나아가 소송하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고, 돌아와 곧바로 바른 이치에 나아가 그 허물을 고치고 정도(正道)에 편안할 수있다면 길하다. 실수가 있어야 돌아오게 되니 이미 돌아왔다면 실수가 없는 것이므로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구(上九) 혹 반대(鞶帶)를 주더라도 조회를 마칠 때까지 세 번 빼앗긴다[或錫之鞶帶,' 終朝三褫之).

상구는 송의 끝에 거하므로 소송을 하면 결국은 흉하게 된다는 의리를 언급하였다. 생각건대 설혹 그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가 얻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질 수 없고 곧바로 빼앗기게 된다고 보았으니 깊이 경계한 것이다. 오징은 '치(褫)'를 '체(搋)'와 같은 글자로 여겨 끌어당긴다는 의미로 보았다. 매우 자랑하고 기뻐하여 하루아침에 세 번씩 몸에 걸친다는 뜻이다. 조회를 보는 동안 세 번 받았다 세 번 잃을 수는 없으므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소인들은 경솔하고 얕으며 교만하여 식자들이 매우 부끄럽게 여길만한 일이라는 것을 형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는 중간에는 길하지만 끝내는 흉하다는 경계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소인들은 반드시 얻고자 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이것을 통해 경계할 줄 알겠는가? 그 때문에 재앙과 환난이 즉시 이른다고 말한 뒤에야 경계하도록 할 수 있다.

'조회를 마칠 때까지 세 번 빼앗긴다'는 것은 빠르게 잃게 된다는 사실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 '상전'에 "송사를 통해 관복을 받는다 해도 또한 공경할 만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 '또한'은 위에서 한 말을 계기로 조회를마칠 때까지 세 번 뺏기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또한 귀하다고보기는 부족함을 의미한다.

사(師)

바르고 장인(丈人)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貞, 丈人, 吉, 无咎).

'장인'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구이(九二)를 가리킨다. 구이는 양강(陽剛)이므로 대인(大人)이라 칭해야 하나 '대'를 '장'으로 바꾸었다. 이는 군사를 움직일 때는 노련하고 경험 많은 이를 더욱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공(太公)이 80세에 매가 날듯이 하고, "방숙(方叔)이 매우 늙었지만 도모한 일은 장년 못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왕신자와 오징은 모두 대인으로 고쳤다. 아마도 군사를 움직이는 일은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대인은 덕과 지위가 있는 이를 통칭하고, 장인은 나이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후세를 염려해서이다. 후세에 덕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에 걸 맞는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에 걸맞는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년기에는 싸움을 경계해야 하고 더구나 성인께서는 군사를 움직이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였으므로 노련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 주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칭한 것이다. 나이든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혈기를 이기지 못하여 지나치게 잔폭한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이 후세 사람들에게 어진 뜻이 지극하다. 한(漢)의 조충국(趙充國)과 당(唐)의 곽자의(郭子儀)가 아마도 그에 가까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15)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5편 공야장(公冶長)

〈제9장〉

재여[宰予]가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썩은 나무는 조각을 베풀 수 없으며. 썩은 토담은 흙손으로 고를 수 없다. 재여를 꾸짖은들 무엇하리오."공자가 말하였다. "전날에는 내가 사람을 볼 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믿었지만은 내가 이제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서도 그 행실을 살피게 되었으니 재여로 인해 이점을 고치게 되었다.

[원문]

宰予晝寢이거늘 子曰 朽木은 不可彫也며 糞土之牆은 不可杇也니 於予與에 何誅리오 子曰 始吾於人也에 聽其言而信其行이렀더니 今吾於人也에 聽其言而觀其行하나니 於予與改是러노라.

[재여주침이거늘 자왈 후목은 불가조야며 분토지장은 불가오야니 어여여에 하주리오 자왈시오어인야에 청기언이신기행이렀더니 금오어인야에 청기언이관기행하나니 어여여개시러노라.]

[이해]

뜻이 혼매하고 기운이 나태해지면 가르침을 베풀 바탕을 상실케 되는 것임을 깊이 나무라는 공자의 내심이 담겨있다.

제10장

공자가 말하였다. "나는 아직까지 꿋꿋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어떤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정이 그렇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정은 욕심이 있으니 어찌 꿋꿋할 수 있으리오."

[원문]

子曰 吾未見剛者러라 或이 子曰 申棖이니다 子曰 棖也는 慾이러니와 焉得剛이리오.

[자왈 오미견강자러라 혹이 자왈 신정이니다 자왈 정야는 욕이러니와 언득강이리오.]

[이해]

신정[申棖]도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인데 사기에는 신당[申棠]으로 되어 있고 자는 주이며 나이는 미상이다.

제11장

자공이 말하였다. "나에게 남이 그리워하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면 나 또한 남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공자가 말하였다. "사야 너는 아직 그렇게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원문]

子貢이 曰 我不欲人之可諸我也하고 吾亦欲無加諸人하나이다 子曰 賜也여 非爾所及也니라.

[자공이 왈 아불욕인지가제아야하고 오역욕무가저인하나이다 자왈 사야여비이소급야니라.]

[이해]

자기가 남에게 받아서 달갑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않겠다는 자공의 말을 공자는 아직 자공이 능히 그렇게 해낼 수 있기에는 다소 미흡한 단계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제12장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의 문장은 들어서 체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생님이 사람의 본성과 천도의 이치에 대해 말씀 하시는 것은 들어서 체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문]

子貢이 曰 夫子之文章은 可得而聞也러니와 夫子之言性與天道는 不可得而聞也니라.

[자공이 왈 부자지문장은 가득이문야러니와 부자지언성여천도는 불가득이문야니라.]

[이해]

공자는 가르침을 베풀 때 제자가 지닌 품성에 따라 그 이끄는 방법을 달리하였는바 자공이 다가설수록 멀어지고 두터워지는 공자가 본성과 천리에 대해 제시하는 진리의 깊이는 실로 지극하기 짝이 없음을 찬탄하고 있다.

제13장

자로는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능히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르지 못하였으면 새로운 교훈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

[원문]

子路는 有聞하고 未之能行하여서는 唯恐有聞하더라.

[자로는 유문하고 미지능행하여서는 유공유문하더라.]

[이해]

사람이 우직한 자로는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남들이 따를 만큼 애써 노력하였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제14장

자공[子貢]이 물었다. "공문자[孔文子]는 어찌하여 문[文]이라 부르게 되었습니까?"공자가 말하였다. "깨달음이 민첩하고 배우기를 즐겨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문이라 불리게 되었다.

[원문]

子貢이 問曰 孔文子를 何以謂之文也니이까 子曰 敏以好學하며 不恥下聞이라 是以謂之文也니라.

[자공이 문왈 공문자를 하이위지문야니이까 자왈 민이호학하며 불치하문이라 시이위지문야니라.]

[이해]

공문자는 위대부 공어를 가리킨다. 자공은 지난 행실이 좋지 못한 그에게 어떻게 문이라는 훌륭한 시호를 주게 되었냐고 의문을 표시하였는데 공자는 그저 배움에 힘쓰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하는 시법에 따랐을 뿐이다. 그 정도의 기본자세를 갖추는 일도 또한 쉽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제15장

공자가 자산에 대해 물었다. "그는 군자의 도를 네 가지 가지고 있었으니 그의 개인 행실은 공손하였고. 그가 윗사람을 섬김이 공경스러웠으며. 그가 백성을 돌보는 것이 은혜로웠고. 그가 백성을 부리는 것이 정의로웠다."

[원문]

子謂子産하시되 有君子之道四焉이니 其行己也恭하며 其事上也敬하며 其養民也惠며 其使民也義니라.

[자위자산하시되 유군자지도사언이니 기행기야공하며 기사상야경하며 기양민야혜며 기사민야의니라.]

[이해]

자산[子産]은 정[鄭]나라 대부[大夫] 공손교[公孫喬]로 자산은 그의 자[字]다. 춘추시대 약소국인 정나라를 오래도록 섬겨 상당히 유능한 수완과 정치력을 발휘했던 인물이다.

제16장

공자가 말하였다. "안평중은 남과 더불어 사귐을 잘 하였다.오래되어도 변함없이 공경하였다."

[원문]

子曰 晏平仲은 善與人交로다 久而敬之하였거니.

[자왈 안평중은 선여인교로다 구이경지하였거니.]

[이해]

안평중[安平仲]은 성[姓]이 안[晏]. 이름은 영[嬰].평[平]은 시호. 중[仲]은 항렬로 제[齊]나라의 대부[大夫]였으며 그의 저서 안자춘추[晏子春秋]가 유명하다. 사람을 오래 사귀면서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친분도 오래도록 유지 될 수 있었다는 말이다.

특기별고 〈53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5〉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조선대표로는 김규식과 리검운, 유자명이 참가하였고, 인도대표로는 샤두신과 간타신, 비샨신이 참가하고, 중국대표로는 왕척전(王滌塱), 휴광록(畦光錄), 로관일(盧貫一)이 참가하였다. 북벌전쟁 기간 국민정부는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의 경비로 매달 2천 원씩 주었으므로, 이 돈에서 인도대표들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유자명이 조선대표로 김규식, 이검운과 자신 세 사람만을 꼽았지만, 다수의 한인독립운동가들이 무한에서 활동하였던 상황에서, 유독 세 사람만 참석하였으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유자명의 회고에서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이 참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듯이, 당시 유악청년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중국군에 재직 중인 한인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였던 권준 장군의 참가는 상상이 가능한 일이다.

같은 시기에 작성된 일제자료에 따르면, 권장군은 1927년 9월 27일 창립된 한국유일독립당 남경촉성회(南京促成會)의 회원으로도 참여했다.

여기에서 잠시 지난호에서 이야기 한, 즉 권준 장군이 중국에서 치열한 독립운동과정에서 참가한 '의열단의 창립선언문은 곧 단재 신채호 선생이 기초한 「조선혁명선언문」이다'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 문창극 총리 후보지명자의 일제강점기나 6.25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인식과 역사관 내지 그의 국가민족관이나 세계·종교관이, 일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히 풍찬노숙하며 피어리고 치열한 항일독립운동과정 및 민족의 분단과 수백만의 동족상잔의 전장 속에 우뚝 선 애국지사 권준 장군을 연재하면서, 이를 지켜본 마음 참담하고 선열(先烈)에 대한 모독감으로 분노케 하였다.

또한 6월 13일자 성균관 1천만 유림의 '문창극 총리 지명자 자진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비슷하여 함께 실어 보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문」의 시작은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國號)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박탈하였다.'로부터 시작하였다. '…(중략) '찍도 짹도' 못하게 각 방면의 속박, 편태(鞭笞), 구박, 압제를 받아 환해(環海) 삼천리가 일개 대감옥이 되어 우리 민족은 아주 작은 인류위 자각을 잃을 뿐 아니라, 곧 자동적 본능까지 잃어 노예부터 기계가 되어 강도 수중의 사용품이 되고 말 뿐이며,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초개로 보아 을미 이후 십삼도의 의병 나던 각 지방에서 일본군대의 행한 폭행도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즉 최근 삼일 운동 이후 수원, 선천 … 등의 국내 각지부터 북간도, 서간도, 노령, 연해주 각처까지 도처에 주민을 도륙(屠戮)한다, 촌락을 소화(燒火)한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오욕(汚辱)한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혹 인신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로 내어 죽인다, 아동을 악형한다, 부녀의 생식기를 파괴한다 하여 할 수 있는데 까지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을 '산송장'으로 만들려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에 거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정치 곧 이족(異族)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구축(驅逐)할지며, 강도 일본을 구축하자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구축할 방법이 없는 바이다'라고 하였으며, 3·1운동의 만세소리에 민중적 일치의 의기가 잠시 드러났지만 또한 폭력의 중심을 가지지 못하였도다. '민중, 폭력' 양자 중 하나만 빠지면 비록 굉열장쾌(轟列壯快)한 거동이라도 또한 천둥같이 끝나는도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의 제조한 혁명 원인이 산같이 쌓이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구축(驅逐)하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활(奸猾)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혁명의 기록은 자연히 참절장절(慘絶壯絶)한 기록이 되리라. 그러나 물러서면 그 후면에는 흑암(黑暗)한 함정이오, 나아가면 그 전면에는 광명한 활로니, 우리 조선민족은 그 참절장절한 기록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이니라. 이제 폭력-암살, 파괴, 폭동-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1.조선총독 및 각 관(官) 관리 2.일본천황 및 각 관 관리 3.정탐노(偵探奴), 매국적(賣國賊) 4.적의 일체 시설물. 이외에 각 지방의 신사(紳士)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적 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만일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中傷)하는 자는 우리의 폭력으로서 갚을지니라. 일본인 이주민은 일본강도 정치의 기계가 되어 조선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선봉이 되어 있은즉 또한 우리의 폭력으로 구축할지니라.(후략)' 라고 하였다.

성균관의 '성명서'에서도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없다.'로 시작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권 혁 채 (본원 종사 연구위원)

省心篇(성심편)〈上〉

인간(人間)은 본연(本然)의 양심과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성찰(省察)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反省)할 수 있는 기회(機會)를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사람은 성찰(省察)에 의하여 점진적(漸進的)인 발전(發展)을 가져오게 되며 보다 큰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

• 景行錄에 云(경행록에 운) 寶貨(보화)는 用之有盡(용지유진)이요 忠孝(충효)는 享之無窮(향지무궁)이니라.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보화(寶貨)는 쓰면 다함이 있으나 충성과 효성은 누려도 다함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 家和貧也好(가화빈야호)어니와 不義富如何(불의부여하)오 但存一子孝(단존일자효)혀면 何用子孫多(하용자손다)리오.

해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거니와 의(義)롭지 아니하다면 부자인들 무엇하랴. 다만 효도하는 자식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자손이 많아서 무엇 하리오.

• 父不憂心因子孝(부불우심인자효)요 夫無煩惱是妻賢(부무번뇌시처현)이라.

언다어실개인주(言多語失皆因酒)요 義斷親疎只爲錢(의단친소지위전)이라.

해설: "아버지에게 근심이 없음은 자식이 효도학기 때문이요, 남편에게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 말에 실수 하는 것은 술 때문이요, 의가 끊어지고 친함이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니라.".

• 旣取非常樂(기취비상락)이어든 須防不測憂(수방불측우)니라

해설: 이미 흔하지 않은 즐거움을 가졌거든 모름지기 헤아릴 수 없는 근심을 방비할 것이니라.

참고: 省心 (성심)=성찰하는 마음. 憂心(우심)=근심하는 마음, 憂..근심 우, 義斷(의단)=의리를 끊는 것, 義..옳을 의, 斷..끊을 단, 煩惱(번뇌)=근심하여 마음이 괴로운 것. 煩..번거로울 번, 惱..번뇌할 뇌, 須=모름지기 수, 防..막을 방. 測= 헤아릴 측, 語失(어실)..말에 실수 하는것, 錢..돈 전, 親疎(친소)=친분이 멀어지는 것, 只..다만 지, 오직 지.

• 得寵思辱(득총사욕)하고 居安慮危(거안려위)니라.

해설: 사랑을 받거든 욕됨을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 때에는 위태함을 생각하라.

• 榮輕辱淺(영경욕천)하고 利重害深(이중해심)이니라.

해설: 영화가 가벼우면 욕됨이 얕고, 이로움이 무거우면 해로움도 깊으니라.

• 深愛必甚費(심애필심비)요 心譽必甚毁(심예필심훼)요, 心喜必甚憂(심희필심우)요 甚臟必甚亡(심장필심망)이니라.

해설: 사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낭비를 가져오고, 칭찬 받음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질투(헐뜯음)를 가져온다. 기뻐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을 가져오고, 뇌물을 탐(貪)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멸망을 가져오느니라.

• 子一曰(자一왈) 不觀高崖(불관고애)면 何以知顚墜之患(하이지전추지환)이며 不臨深泉(불임심천)이면 何以知沒溺之患(하이지몰익지환)이며 不觀巨海(불관거해)면 何以知風波之患(하이지풍파지환)이리오.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으면 어찌 굴러 떨어지는 환란(患難)을 알며, 깊은 못에 가지 않으면 어찌 빠져 죽을 환난을 알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풍파(風波)의 무서운 환란을 알리요."라고 하셨다.

• 欲知未來(욕지미래)인대 先察已然(선찰이연)이니라.

해설: 앞으로 다가올(미래) 일을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 子一曰(자一왈) 明鏡(명경)은 所以察形(소이찰형)이오 往者(왕자)는 所以只今이니라.

해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밝은 거울은 얼굴을 살필 수 있으며. 지나간 일은 현재를 알 수 있는 길이니라." 고 하셨다.

참고: 得..얻을 득, 寵..사랑할 총, 欲..하고자 할 욕, 慮..생각 여, 염려할 려, 危..위태로울 위, 輕..가벼울 경, 淺..얕을 천, 深..깊을 심, 費..소비할 비, 譽..명예 예, 毁..헐 훼, 臟..뇌물받을 장. 觀..볼 관, 崖..언덕 애, 顚..엎어질 전, 臨..임할 임, 沒..빠질 몰, 溺..빠질 익(오줌 할 때는 "뇨"로 발음한다), 泉..샘 천, 患..근심할 환, 재앙 환, 先..먼저 선, 察..살필 찰, 鏡..거울 경, 往..갈 왕, 然..그리 연.